

# 광주 화재 취약 방음터널 패널 교체 '지지부진'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참사 2년  
정부 플라스틱 소재 교체 행정명령  
미완료 전국 10곳 중 광주가 5곳  
시한 지났지만 한 곳도 착공 못해  
시 "200억 조달 어려워 공사 지연"



27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2순환도로 효덕교차로 일대에 있는 진월방음터널 전경. 2012년 준공된 이 터널은 천장과 벽면을 화재에 취약한 PMAA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

광주시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한 정비 대상 방음터널 중 단 한 곳도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전국 방음터널을 대상으로 지난 2월까지 화재에 취약한 플라스틱(PMMA·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소재를 교체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지자체에 내렸음에도 광주시는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 2월부터 정부 행정명령을 받아 PMMA 소재로 천장, 벽체를 만든 방음터널 5곳을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 대상지는 남구 진월, 서구 풍암 서창방면, 풍암 광명메이루즈, 광산구 우산, 북구 광안고가차도 등이다.

광주의 정비 대상지는 전국적으로 남아 있는 공사 미완료 구간 10곳(고속도로 2곳, 지방도 8곳) 중 절반에 달한다.

27일 현재 전국 55곳(고속도로 12곳, 국도 12곳, 지방도 31곳)의 정비가 완료됐다.

광주를 제외한 미완료 구간들은 정비 완료를 앞두고 있다. 경기 군포시, 목포시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경부고속도로 방음터널 2곳은 이미 공사에 착수했다. 세종시도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착공 계획을 세웠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 4일야야 5개 터널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 광주시는 구간이 긴 방음터널이 많아 예산이 많이 필요해 공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타 시·도에서는 총 예산이 50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광주는 200억원이 넘는 거금이 필요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또한 아파트 주택 비율이 81.7%에 달하는 '아파트 도시' 영향도 있다고 광주시는 분석했다. 고속도로와 제2순환도로 등 도로가에 아파트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방음터널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광주시의 방음터널 5곳을 정비하려면 총 22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진월 94억원, 풍암 광명메이루즈 20억원, 풍암 서창방면 28억원, 우산 54억원, 광안고가차도 24억원 등이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1회 추경을 통해 설계비 1억원을 반영했고, 진월방음터널에 대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아 정비예산이 태부족한 상태다.

시는 우선 진월, 풍암, 우산, 광안 순서로 차례대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재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광주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진월방음터널에 투입할 예산 84억원도 조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풍암, 우산 방음터널에 쓰일 예산 102억원을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신청했다.

예정대로 재원이 확보되면 방음터널 공사는 내년 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만 모두 처리하게 하는 것은 열악한 재정

을 가진 지자체에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전국적인 예산 감축으로 자체 예산을 세우기도 어렵고, 하던 사업도 취소하는 상황에서 단순 유지관리 차원의 사업에 수백억원 예산을 투입하려다 보니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 빠른 시일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29일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났다. 당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방음터널 자체로 썼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절도인 줄 알았는데 잡고 보니 마약사범 원룸서 '던지기' 30대 검거

광주한 주택가에서 '던지기' (특정 장소에 숨겨두면 찾아가는)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려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밤 9시 5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원룸 건물에서 필로폰을 은닉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주인이 "모르는 사람이 건물에 들어왔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붙잡았다.

A씨는 "전단지를 붙이려고 했다", "택배와 폐기물 등을 숨치려 했다"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다.

경찰은 A씨의 가방 안에서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감싼 2cm 크기의 필로폰 1g 무게 129개를 발견했다.

A씨가 묵던 숙박업소 내에서도 500g의 필로폰이 추가로 발견됐다. 사건 현장인 원룸 건물에 마약 구매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려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윗선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전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뱅크로리 주행 중 연결관 파손 경유 4000여 l 고속도로 유출

고속도로를 달리던 유류운반 뱅크로리의 연결관이 파손돼 경유 4000여 l 가 도로로 유출됐다.

27일 장흥소방과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0분께 장흥군 부산면 영암-순천 고속도로 순천방면에서 도로를 달리던 25 t 뱅크로리에서 경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행 중이던 뱅크로리 차량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파편이 연결관을 파손시켜 적재됐던 경유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뱅크로리에 실려있던 경유 3만2000여 l 중 4000여 l 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은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음주 추정 차량 추격, 사망 부른 유튜버 송치

추격전 가담 등 6명도

자신이 추적하던 음주 의심 운전자가 사망해 사적 제재 논란을 부른 유튜버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교통조사과는 공동협박과 공동위협 등의 혐의로 A(41)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외에 같이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추격에 가담한 5명과 이에 앞서 이들 범행에 가담한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6명은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하는 것으로 의심해 차량을 유튜버 생방송을 하며 뒤쫓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유튜버 생중계 촬영에 함께한 여성 B씨는 지난 8월 광산구 첨단1의 한 무인텔에 들어간 음주 의심자를 경찰이 올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해 주며 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13일 기각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 '법정 선거비용 초과' 신용식 광양시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신용식(다 선거구) 광양시의원이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해당 선거구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신 의원은 2022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아내와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벌금 150만원을 선

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는다.

광양 다 선거구(중동)에서는 내년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달 20일 예비후보, 내년 3월 13~14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진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